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금융기관, 이슬람 금융시장 진출 본격화

□ 일본의 주요 금융기관들은 은행법 개정으로 이슬람 금융상품을 정식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최근 대출 및 채권 관련 신상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음.

- 2008년 12월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은행 자회사가 이슬람 금융상품을 정식으로 판매 및 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은행권을 중심으로 각종 관련 상품들의 출시가 이어지고 있음,
- 도쿄미쓰비시UFJ은행은 말레이시아 금융그룹인 CIMB와 5천만 달러 규모의 무라바하* 방식의 대출 상품을 일본 은행으로는 최초로 판매할 예정이며, 미츠이스미토모은행도 영국 자회사를 통해 이슬람 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음.

* 무라바하: 이자 수취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상품, 기계 등의 실물 거래를 통해 이윤을 남기는 이슬람 금융 방식. 이슬람 금융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연구원(2009) '이슬람 보험시장 진출 방안'을 참조

- 또한 노무라증권도 최근 이슬람 금융 기법을 이용한 채권(수쿠크)을 말레이시아에서 발행한다고 발표했으며, 도쿄해상홀딩스도 금년 내 사우디아라비아은행과 합작회사를 설립*한다는 방침임.

* 키리위클리 해외금융뉴스 2010.4.19자 '도쿄해상홀딩스, 사우디아라비아에 생손보 합작사 설립' 편 참조

□ 이슬람 금융시장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10% 이상의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일본 금융기관들의 관련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.

- 일본국제협력은행(JBIC)에 따르면 현재 이슬람 금융시장 규모는 약 1조 달러 정도로 글로벌 금융위기 및 두바이 사태 충격에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약 10% 이상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함.
- 중동의 설비투자 확대 및 이슬람 인구 증가 등으로 향후 이슬람 금융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수시장 침체를 해외시장 활로 개척으로 만회하고자 하는 금융기관들의 이슬람 금융시장 공략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됨.

(FujiSankei Business | 7/19)